



## 공부는 왜 하나요?

박경옥

우리나라 엄마들의 교육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열과 맞먹을 정도로 소문이 나 있다. 게다가 우리의 자녀 교육은 임신 기간부터 시작된다. 음식 가려 먹는 것은 상식이고 뱃 속의 아기에게 음악을 들려 주고 책을 읽어 준다. 좋은 그림을 보면서 태아에게 설명을 해 주기도 한다.

아기가 태어 나기 전부터 교육 보험을 들고 두 살이 채 안 된 아기들은 한글 읽기를 시작한다. 이전에는 주로 시험지가 배달되었으나 요즘은 비디오나 CD를 활용하는 교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무엇때문에 아이들을 공부에 몰아 부칠까? 태어나기 전부터 공부 준비 작업을 하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이리도 볶이고 있는지를 알고나 있는 것일까?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의 방 벽에 '가나다라'와 'ABCD'를 붙여 놓고 있는 엄마는 아이가 경쟁에서 뒤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붙였다고 한다.

우리도 학교에 다니며 “왜 공부를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했었다. 어른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만들어 놓으셨다. 먹고 살기 위해서, 좀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류대에 가야 했다. 부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일류대가 필요했다. 생존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부가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좋은 신앙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화여대가 첫 관문이었다. 친정 아버님은 내가 이 학교에 원서를 내지 않은 것을 처음에는 섭섭해 하셨으나 곧 생각을 바꾸시고 남녀 공학을 선택한 딸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했다. ‘시집 잘 가기 위해 공부한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한 나의 작은 반란의 성공은 후에 있을 큰 반란의 기초가 되었다. 4년 뒤 내가 대학원에 진학할 것으로 믿고 계시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는 결혼을 택했고 그 후 남편과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 라브리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아마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공부를 중히 여겼다. 물론 양반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이들도 부와 권세와 명예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였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보다 한 가지 더한 명분이 있었는데, 바로 가문의 영광을 위해 과거에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공부와 함께 자기 수양에도 힘을 쏟았다. 공부가 곧 자기 수양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출세와 자기 수양,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는 성질의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조상들의 정신은 높이 사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진 인물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황희 정승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없음은 사람이 한 쪽으로 치우치기 쉬움을 보여 준다.

이제는 부모가 된 우리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되었다.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은 공부할 필요성에 대해 아직 뚜렷한 명분을 발견하지 못한 우리 부모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

오늘날의 공부는 옛날처럼 ‘자기 수양’의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오늘날의 윤리 교육은 철학 사조 외우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학교에서 ‘인간 교육’을 포기한 지는 오래 되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의 한숨 섞인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말해 준다. 학생에게 쓰레기를 주으라고 말했다가 당한 이야기인데, 학생의 대답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었다고 한다. “쓰레기 주으러 학교에 등록금내고 오는 줄 아세요?” 이 아이는 지식 조각들을 머리 속에 집어 넣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이지 기본적인 인간됨됨이를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는 공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위의 학생의 말은 한 개인의 생각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부모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배우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기어 다니는 아기들은 방바닥에 있는 조그만 부스러기를 매우 신기한 듯 조심스럽게 주워 올린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면 안전 관리에 특별히 신경쓰는 것은 상식이다. 호기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손은 계속해서

무언가 만져야 되고 무엇이든 배우고 싶은 그들의 두뇌는 어른이 따라가기에 역부족이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호기심은 줄어 든다. 책상 앞에 앉혀 놓은 아이들의 눈은 얼마 전에 그들이 보여 주었던 탐구심으로 반짝이는 대신 빨리 이 시간이 지나 가기만을 기다리는 지루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다.

공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만 이루어 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른들의 잘못된 이런 사태를 거들고 있다. 게다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아이들보다는 우리 어른들에게 편리한 ‘체계적인 공부’를 말한다) 전문인들이 고안해 낸 어떤 유명 프로그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관심 거리를 찾아 탐구할 시간을 빼앗기고 대신 마른 톱밥 같이 재미 없는 교재를 푸는 데 인내하는 훈련을 쌓는다.

공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설거지하는 엄마에게 다가와 책을 읽어 달라고 할 때가 공부하고 싶다는 표현이다. 비온 후 마당에 나와 있는 지렁이를 한참 동안 보고 있는 어린 아이는 지금 공부 중이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며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는 아이 역시 공부 중이다.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타다가 넘어져 다리에 피가 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전거에 오르는 아이는 현재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다. 우리 어른들은 ‘학교 교과목’에 관심 갖는 것만을 ‘공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면 그 아이의 공부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를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

얼마 전에 70이 넘는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 왔는데, 그 동네에서 토마스 하디의 시 낭송회가 열린다고 해서 오셨다고 했다. 영국 할머니였는데, 이 시를 낭송하는 일본인 박사는 할머니를 보고 의아해 하며 할머니께 토마스 하디를 연구했느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학교 다닐 때 토마스 하디의 시를 좋아 했었노라고만 말했다.

할머니는 아직도 시 몇 편을 외우셨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자신이 외우고 있는 시가 몇 편이나 되는지, 이 할머니처럼 평생을 두고 좋아할 만한 시인이 있는지 다시 돌아 보게 되었다. 도대체 이 할머니가 받은 교육이 어떤 것이었길래 평생 시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그 할머니의 친구 할머니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였다. 90세가 되어 귀도 잘 들리지 않는 한 분은 자신은 지금도 셰익스피어를 좋아한 다고 하셨다. 그 분들은 훌륭한 미술 작품과 음악을 감상할 줄 알았으며, 들꽃의 이름과 생태를 알고 있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그 분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설익은 학자가 풍기는 현학적인 뽀냄과는 거리가 먼, 배움에 대한 즐거움 그 자체였다. 영국 교육을 찬양하려고 이 예를 드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할머니들이 받았던 교육은 지금 영국 교육계에서 약간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으나 매우 다르다. 앞으로 나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는 교육이다.

나는 이 분들에게서 진정한 교육이 남긴 아름다운 인생을 볼 수 있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꺼지지 않는 관심과 광범위한 지식, 인생에 대한 상식, 그 분들이 평생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상관없이 그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사회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삶을 가꿀 줄 아는 교육. 이 분들에게 있어 교육은 삶이었다. 인간으로서의 삶,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 다른 인간들이 만들어 낸 작품들을 감상하며 자연을 탐구하고 즐기는 삶을 그들은 배웠다.

내가 받은 교육을 생각해 보았다. 학교를 다닌 시간은 내가 더 많았다. 내가 배운 양은 그들이 배운 양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나는 연로하신 그 할머니들처럼 평생토록 문학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예술 작품을 즐기지도 못한다.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을 외우기는 했으나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에는 눈을 감았었다. 교실 안의 공부와는 시험과 함께 거부했고 남은 것은 졸업장이나 학위, 즉 한 장의 종이만이 나의 교육을 대변해 주는 듯 하였다.

우리는 아이의 교육을 생각할 때,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배움에 대한 아이들의 타고난 관심을 어떻게 하면 손상시키지 않고 교육을 통해 꽃피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이상하게도 교과서는 재미없게 쓰여진 것이 많다. '맛'은 쏙 빼고 영양가만 계산해서 차려 놓은 밥상같은 생각이 든다. 그것을 먹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처절한 인식은 있지만 도저히 맛이 없어 먹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교과서는 모두 치우고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짜서 맛과 영양이 풍부한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고 아이들은 점차 공부를 즐기기 시작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산 정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들은 산이 있기에 산을 오른다고 한다. 마찬가지이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고? 학문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우리의 흥미를 돋구는 것이 하도 많기에 즐거움과 경이로움으로 배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아이를 잘 아는 어른이 아이에게 맞게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아이는 공부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아이에게 부족한 면을 부모가 집에서 도와줄 때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급의 학생 수가 좀 더 줄고 학부모나 보조 교사를 활용해 뒤지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면 혹자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훗날 사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교육이 하는 일이 아닌가? 자기 혼자서 이것 저것 배우고 즐기지만 한다면 그가 훗날 사회에 쓸모가 있겠는가? 사회에서 자신이 쓰임받을 만하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배

우기를 즐기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옛날 선비들처럼 머리로만 배우고 손은 움직이지 않는 ‘한 쪽에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과학도, 기술도 배우는 광범위한 교육에서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교육을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는 ‘상식’을 갖춘 사람은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부해서 남 주나’라는 말을 잘못 써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공부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내가 만났던 할머니들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다.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도록 하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학문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자연이 아이들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 주자.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가 훗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도록 옆에서 도와 주자.